

# 사라져가는 동네 추억을 기억하는 법

쥬스컴퍼니 두번째 양림기억창고  
31일~2월 9일 '안녕, 은성유치원전'  
졸업생 대상 공모 사진 등도 전시  
5월부터 복합문화공간으로 변신



사라져가는 공간을 기억하는 아카이브 전 '안녕, 은성유치원'전에서 선보일 1980년대 유치원 행사 모습. <신예순 원장 제공>

'우리 동네 역사를 기억하는 법.' 재개발 등으로 오래된 공간들과 그에 얽힌 이야기들이 사라져 가는 요즘, 생생한 당시의 삶을 기억하고 아카이빙하는 일은 꼭 필요한 작업이다.

지난 2017년 진행된 '양림기억창고' 프로젝트는 마을과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소중한 추억을 오롯이 보여준 아카이브 전시였다. '언제나 꽃처럼 피어있는 나의 고향'을 주제로 열린 전시에는 주민들의 기억 속에 새겨진 양림동의 따뜻한 사진이 담겼다. 터줏대감인 65년된 쌀집 주인 등 동네 사람들에 대한 소중한 이야기와 함께 양림동의 오래된 공간들이 주민들의 손에 의해 기록됐다.

쥬스컴퍼니(대표 이한호)가 진행하는 '양림기억창고'는 빠르게 변화하는 마을의 풍경 속에서 무심히 흘러보냈던 일상의 추억을 주민의 시선으로 기억하고 공감하는 역사를 만들기 위해 기획됐다.

두번째 양림기억창고는 지난 2018년 문을 담은 은성유치원을 소환한다. 양림기억창고 2020 '안녕, 은성유치원전'이 오는 31일부터 2월 9일까지 옛 은성유치원 1층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지난 50여 년간 유치원과 함께하고, 그 시간을 기억하는 지역과 마을주민들을 위한 전시로 공간의 장소적 특성과 기록, 기억, 추억을 정리해 장소의 맥을 잇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전시는 은성유치원이라는 옛 공간에 대한 작별과 새로운 출발을 함께 담아 진행된다. 현재 외관 리모델링을 마친 유치원은 오는 5월부터 '어른들의 유치원'을 표방하는 복합



50여년 역사를 뒤로하고, 5월부터 복합문화공간으로 사용될 은성유치원.

문화공간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1975년 문을 연 은성유치원은 오랜 기간 양림동 마을 주민들의 일상 속에서 소중한 장소로 기억돼 온 교육기관으로 광주·전남에서 몬테소리 교수법을 처음 도입했다. 전시 준비팀은 오랫동안 운영

을 맡아온 신예순 원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유치원의 역사 등을 듣고 사진, 리플렛, 발표회 자료 등 다양한 자료를 수집했다. 또 유치원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해 자신들이 다녔던 시절의 유치원 풍경과 행사 사진 등도 받아 이번 전시에 함께 선보인다. 유치원 마당에서 그네를 타던 모습, 종이 왕관을 쓰고 생일파티를 하던 사진, 재밌었던 캠프파이어 모습 등 다채로운 사진을 만날 수 있다.

또 은성유치원과 함께 시간을 공유해 양림동의 역사를 담은 아카이브 자료들도 전시하며 정현기 호랑가시나무 대표가 촬영한 양림동 사진들도 만날 수 있다.

이냐영 쥬스컴퍼니 팀장은 "양림기억창고 프로젝트는 공간과 장소가 갖는 역사성을 모으고 공유하는 기획"이라며 "앞으로 운영될 문화공간도 은성유치원의 가치를 이어받아 문화콘텐츠,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광주 예술지원 1년 단위 결과물 중심서 지속적 창작과정 중심으로 전환 필요"



공연장상주단체 육성사업에 선정된 광산문화예술회관 그린발레단 공연 모습.

## 정경운 전남대교수 발표 논문서 주장 "자생성 위해 공적지원 구조 선행돼야"

광주의 예술지원정책이 1년 단위 결과물 중심으로 지속적 창작과정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자생성을 위해 효율성의 판단보다 공적지원체계를 갖추는 구조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같은 제안은 정경운 전남대 교수가 최근 호남학연구원이 발간한 '호남학' (제66집)에 발표한 논문 '예술지원정책이 지역 예술생태계에 미친 영향 연구: 광주시를 중심으로'에서 제기됐다.

정 교수는 논문에서 "1년 단위 결과물 중심은 작품의 '인스턴트화' 경향으로 인한 질 낮은 작품을 생산하는 원인이 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최상의 작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조사 및 연구, 기획, 전문가그룹을 동반한 제작워크숍 지원 등을 통해 예술가의 창작역량을 강화하면서 작품을 지속적으로 진화해나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2017년 광주문화재단이 실시한 예술가 80명의 면접조사를 검토한 결과 "예술가의 경제적 여건, 지원사업 의존성, 창작환경의 열악함, 신진예술가 단절 등은 각기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밀려 있는 것들"이라고 분석했다.

당시 조사에서 '예술가들의 생활정도'는 상 3%, 중 52%, 하 45%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창작활동 이외에 다른 직업을 갖고 있거나 활동을 하고 있는 가'라는 물음에는 71%가 '있다', 29%가 '없다'로 조사됐다. '있다'라고 응답한 이유는 중견이나 신진 예술가 구분 없이 모두 '경제적 이유'를 들고 있었다.

창작지원('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의 경우 개인과 단체가 연 평균 150개 선정된다. 외경상 적지 않지만 미술, 음악, 문학, 전통, 다원, 무용, 연극, 사진 등 8개 분야를 포괄하기 때문에 실상은 많은 편이 아니다. 더욱이 개인은 300~500만원, 단체는 500~1000만원 정도의 창작지원금이 지원된다. 이 같은 '소액다건'은 '저예산 지원'과 맞물려 몇 가지 문제점을 양산한다는 지적이다.

예술가들이 작품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 사비를 추가해야 하며 작품활동을 하면 할수록 경제적 압박이 가중된다는 것이다.

또한 정 교수는 지원금은 철저하게 결과물 제작에만 투입돼야 하므로 창작행위 자체에 대한 비용은 아니라고 강조한다. 다시 말해 "제작비 중심의 지원금 성격은 창작활동과정에 소요되는 필수비용을 제한함으로써 그렇지 않아도 턱없이 부족한 예산을 불필요한 곳에 낭비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는 의미다.

정 교수는 공적지원 의존이 심화되면서 예술계에서는 주목할 만한 특이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도 진단했다. 즉 예술가의 기획자와, 단체 창작활동의 프로젝트화, 예술가의 존재적 불안의식 증대가 그것이다.

"기획자로서 예술가에게는 작품내용의 기획뿐만 아니라, 복잡한 회계정산 역량까지도 요구된다. 기본적으로 이런 형식의 문서작업에 취약한 예술가들은, 공모사업 초기에는 문서내용을 제대로 채우지 못해 탈락하기가 다반사였고, 애초에 포기한 경우도 많았다."

또한 단체 창작활동의 프로젝트화는 공연단체 특히 연극 분야에서 두드러졌다.

정 교수는 "지원사업 의존이 만들어낸 기형적 현상인지 아니면 시대적 변화에 따른 다양한 형식의 발전 중 하나인지 진지하게 물어볼 때가 온 것"이라며 "가능한 조건 하에서만 모이는 공연을 중심으로 할 때 이 분야의 신진예술가 진입이 애초부터 불가능하게 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예술적 세대 계승 차원에서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정 교수는 이와 같은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적지원체계 구축, 지원결과물 유통과 외에도 지원개념 범주에 대한 확장된 사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즉 창작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아울러 기획, 제작, 홍보마케팅이 작동할 수 있는 전문기획자의 매칭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 교수는 예술작품에 대한 통합홍보시스템의 필요성도 제안했다. 공적 기관이 통합홍보 시스템을 구축해 원활하게 작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목요일 열린국악한마당

### 비나리·성주풀이로 문 연다

다음달 6일 빛고을국악전수관

국악팬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온 목요일국악한마당이 올해도 계속된다.

2020년 목요일국악한마당 개막 공연이 오는 2월 6일 오후 7시 빛고을국악전수관에서 열린다.

이날 개막 공연에서 지산농악보존회를 초청해 '비나리', '액백이', '성주풀이' 등을 선보인다. 특히 '비나리'는 2020년 경자년 국악전수관의 성공적 운영과 모든 관객들의 무병장수와 평안, 그리고 모든 목요일국악한마당 공연이 성황리에 마쳐질 수 있기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2003년부터 운영해 온 광주 서구의 목요일국악한마당 공연은 광주의 대표적인 국악상설 프로그램으로 매년 40여회 공연을 열어오고 있으며 17년간 632회 공연으로 광주



2020 목요일국악한마당 개막 공연이 2월 6일 오후 7시 빛고을국악전수관에서 열린다.

시민과 만났다. 서구는 또 2월 13일 '음율당'의 가야금병창 공연과 2월 20일 김선이 명창의 '홍보가' 공연, 2월 27일 (사)풍류회 '죽선방' 초청 사관풍류 공연을 펼치는 등 다양하고 알찬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

목요일국악한마당은 2월 6일부터 12월 17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에 열리며 입장료는 무료다. 한편 지난 2002년 10월 개관한 서구 빛고을국악전수관은 연면적 2000㎡(지하2층, 지상3층)규모로 광주에서 유일하게 국악전용 공연장을 갖추고 있으며 국악전수실과 국악박물관 등을 구비하고 있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작은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업무국 062.220-0551

### 남악장례식장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로 250번길 59-30  
시그니티 요양병원 1층  
최신시설완비 친절·신용·분위  
각종장례용품 염가제공  
☎061-285-0444

### 천을귀인

동구 필동대로 191번길 19 (산수동)  
궁전타로, 인생심리상담, 사주명리학  
타로 배우실분 신청하세요!  
☎010-7186-6894

### 자동차 배터리 할인마트

북구 자미로12(신안동128-7번지)  
무료출장  
☎062)252-1119, 010-9881-2922

### 동양철학원

동구 불로동 11-2 (평화시장 옆길)  
사주, 작명, 개명, 신수, 궁합  
택일, 개인지도 함.  
☎062)224-7687, 010-2611-7687

### 국제행복찾기 결혼정보

나주시 동정문길 8(중양동98-6)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중국  
최고의 만남을 주선합니다.  
☎061)337-7712, 010-5288-3257

### 우영생기원

동구 독립로 282-10 (대인동) 2층  
척추교정, 기치료, 유전질환치료, 건강상담  
수액, 명당, 철학, 작명, 궁합, 택일, 도인양성  
각 분야 개인지도  
☎062)236-2655, 010-3646-2977

### 나주산약초

나주시 동정문길8 (나주터미널빌)  
미세먼지 걱정됨!!  
☎061)333-4514, 010-3620-7268

### 함께와들개

나주시 나주로15 (나주신협앞 다리 건너 위)  
김밥·멸치국수전문점  
김밥8멸치육전국수  
☎061)332-9992, 010-7103-2556

### 박당화랑

동구 공동 51-18번지(예술의 거리)  
한국화, 서양화 매매 및 감정  
대표 박환승 ☎062)222-6866

### 석당화랑

동구 공동 예술의 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위탁판매  
대표 이석재 ☎062)222-3118

### 향촌

서구 상무회로 32번길 29-3(치평동)  
한우, 생삼겹살, 돼지양념갈비, 대패삼겹살  
육회비빔밥, 제육볶음, 김치찌개, 병면  
시골떡국 단체손님환영  
☎062)371-0583, 010-3947-0005

### 三代(삼대)원조 나주곰탕

무안군 삼향읍 오로2길 14 (전남도청 옆)  
태양집 60년 전통  
수육, 수육무침, 육회 포장기는 단체환영  
☎061)287-3229, 010-3602-0297

### 황금세차장(주)

남구 송암로 27번길 23  
(송암공단에서 호천지구방향 진입로옆)  
초대형셀프세차, 손세차, 광택, 유리막코팅  
대표이사 김용연 ☎062)652-4564

### 양지공인중개사

북구 두암동 부영아파트 정문앞  
아파트, 빌딩, 원룸, 투룸, 상가  
임야, 토지 경매·관리분석  
대표 정민각 ☎ 062)263-2223

### 해동공인중개사부동산컨설팅

나주시 산포면 468-4(산포면사무소 입구)  
토지·임야·주택·아파트·땅  
각종부동산 매매 상담  
☎ 061-337-8244, 010-3626-9040

### 초대화랑

동구 공동54-2번지(예술의 거리)  
동양화, 서양화 전문판매점  
대표 임해택 ☎062)222-2516

### 따뜻한내과·건강검진센터

북구 운암동 남양휴튼2차상가 2층  
소화기 내시경 전문의 2인  
진료시간 : 평 일 오전 8:30~오후 6시  
토요일 오전 8:30~오후 1시  
원장 이상선·박민규 ☎062)511-3388

### 완도전북

나주시 나주로 131 (나주신협옆)  
산지 직송 도·소매  
전국택배가능  
☎010-2831-9257

### 골프가방수선전문점

서구 치평동 세정아울렛점문 동양빌딩앞  
명품가방수선, 골프가방수선, 등산화수선 전문점  
☎ 010-2087-3592

### 고전방

동구 공동 34-4  
(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대표 김화중 ☎062)224-4869

### 광주갤러리경매장

동구 대인동 동부소방서후문앞 침종은빌 1층  
수석, 동양화, 서양화, 민속품  
매주 토요일, 일요일 오후시부터  
☎ 010-6778-9330

### 신신예술의집

동구 공동 예술의 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  
대표 서태석 ☎062)222-1936